咸安趙氏宗會報

發行人 : 趙鏞韶
編輯人 : 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29-1
TEL : (055) 585-6788
FAX : (055) 585-6788
부산연락처 : 626-1572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 : 246-5667 · 247-9904
FAX : 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6世祖 趙烈 咸安서 居住

高麗時代 從2品 벼슬

咸州誌서 확인 『趙悅 선조는 烈의 玄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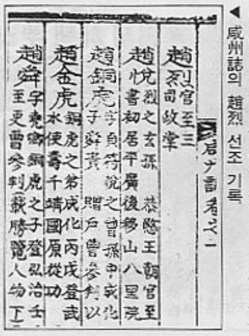
함주지(咸州誌=함안의 옛 관지(官誌))의 인물편(人物編)에 함안조씨 6세조 휘 열(烈)께서 고향을 「함안」에 두고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정(朝廷)의 전곡출납(錢穀出納·會計)을 담당하는 부서인 삼사(三司)와 中書門下省이란 부서에서 종2품(從二品 차관급) 벼슬인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셨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10세조 고려말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휘 열(悅) 이전에도 선조께서 이곳 함안에서 대대(代代)로 세거(世居)하셨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함주지 52페이지에 「趙悅은 烈의 玄孫(고손)」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 보관된 국내서 가장 오래된 관지인 咸州誌 인물편에 고려때의 李芳實 장군의 행적 다음줄에 「烈字가 삼사정당(三司政堂)」이란 높은 관직에 계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우리 함안조씨 가문에 새로운 선대사적(先代史蹟)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함안조씨 10세조 전서공 웃대(代)에 현존하는 기록이 없고 전서공의 유적비(遺蹟碑)와 전서공 선고(先考) 휘 天驁(고려봉익대부판도판서)의 유허비가 모두 합천(陜川)에 세워져 있어 선대 연고지가 합천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었지만 이로써 6대조 휘 열(烈) 이전부터 함안에 세거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立證)된 것이다.

이 함주지는 서기 1587년 함안군수를 역임한 학자(學者) 한강(寒岡) 정구(鄭逑·1543~1620) 선생이 쓴 것이다.


咸州誌 卷之二
趙烈 官至三司政堂
趙悅 烈之玄孫 恭愍王朝官至典書 初居平廣 後移山八里院
趙銅虎 字貞符 悅之曾孫 中文科以 子舜貴 贈戶曹參判
趙金虎 銅虎之弟 成化丙戌登武 水使壽千 靖國原從功
趙舜 字堯卿 銅虎之子 登弘治壬 至吏曹參判 勝覽人物 (下)

◀ 咸州誌의 趙烈 선조 기록

雉岳山에 『題名錄』안내비 建立키로

趙旅·元昊·도촌 后孫들 합의

강원도 영월군 치악산(雉岳山) 제명록(題名錄)이 있는 절벽 아래에 생육신 정절공 趙旅 선생과 관란공 元昊 선생, 또한 유학자 도촌 李秀亭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세 선생의 충절(忠節)을 기리는 안내석(碑)을 세워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이곳의 전설(傳說)을 알리기로 했다.

지난 7월 10일 치악산 무릉계곡(武陵溪谷)에서 세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5백44년전 단종(端宗)이 숙부 세조(世祖)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영월에 유배되었을 당시, 세 선생이 단종의 성수(聖壽)를 빌면서 암벽에 이름을 새겨두셨던 곳으로, 이 제명록 아래에 높이 5자, 폭 3자의 오석(烏石)에 앞부분은 「題名錄」이라 쓰고 뒷면에는 복원기(復元記) 측면에는 유래기(由來記)를 기록한 비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문안 작성은 도촌의 후손(경북 봉화)이 맡았고 경비 6백만원은 세 선생 후손들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漁溪 선조 神道碑閣 보수완료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어계선조(漁溪先祖)의 묘소 남쪽 길목에 세워진 신도비각(神道碑閣=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낡아 7월말께 보수를 마쳤다.

3백여년전 대제학(大提學) 이재(李縡)가 쓴 이 비의 비신(碑身)의 울타리 벽이 무너지고 지붕의 기와가 깨어져 비가 새는 등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말끔히 보수하고 비각으로 들어가는 뜰앞에 자갈을 깔아 잡초가 돋아나지 못하게 했다.

三忠祠 향례 엄수

지난 5월 29일(음력 3월 말정일(末丁日))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소재 삼충사(三忠祠) 향사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삼충사는 함안조씨 13충 가운데 휘 붕(鵬·증 參判公)과 그의 장질 휘 응도(凝道·固城公) 그리고 종제인 휘 익도(益道·증 參議公) 세분의 행적(行蹟)을 기려, 지방의 유림들이 건립한 사당(祠堂)이다.

해마다 이곳에서 자손들이 향례를 갖는데 참여하는 후손이 적어져 마음이 아팠는데 올해는 종중운영회 제2차 총회를 갖게 되어 일본서 福奎 회장도 참석하였고 울산에 거주하는 고성공 후손 세분이 함께 하여 제관이 예년보다 많았다. 다음날 參議公派 종사회 총회도 많은 일가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全國화수회 정기총회

2천년도 전국화수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부터 지역화수회별로 일제히 개최되었다. 종사운영회에 통보해온 화수회 행사는 다음과 같다.

▼晋州화수회(회장·在勝)
지난 5월 13일 하오 시내 도원부페 연회장에서 회원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咸安郡화수회(회장·相來)
지난 5월 18일 상오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어계선조 재사 응암재(鷹巖齋)에서 회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釜山화수회
지난 6월 4일 시내 명륜동 東萊중학교 강당에서 8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제34차 정기총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大邱화수회(회장·顯麒)
지난 6월 6일 시내 그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4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회장 선출에서 顯麒 회장이 만장일치로 유임되었다.

▼蔚山화수회
지난 6월 24일 정오 시내 올림피아호텔 연회장에서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회장에 鏞度(方壺公派) 종원이 선출되었다.

▼昌原화수회
지난 6월 25일 시내 올림픽호텔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이날 임원선출에서 동읍 농협지소장 光來 종원이 새회장에 선임되었다.

올해 2次分 4백만원 답지

宗會報 協贊金 갈수록 줄어 發刊에 먹구름

종회보 협찬금 올해 2차분(5월~7월 20일까지)이 95건에 3백96만원이 답지되어 금년 모두 4백51건에 1천5백88만원이 접수되었다. 이 금액은 회보 2회 발행에 맞는 액수지만 지난해 이월금 3백6만원, 지난해 함안조씨 13충실록 이익금 2백만원, 그리고 광고료 2회분 2백 77만원 등으로 이번 23호 발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2분기 협찬금은 대한M&A주 기업인수합병회사를 경영하는 대구의 景珍(東溪公派·來) 종원이 선조를 위해 별로 한 것이 없고 종회보 협찬금도 선조를 위한 헌성금으로 알고 보낸다면서 50만원을 보내주셨고, 해마다 잊지 않고 송금하는 서울 明知大學校 白濟 부총장이 올해도 30만원을, 충청도 당진에서 철강회사를 경영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孝濟 종원이 20만원을 각각 보내 주셨다. 이밖에 晋州지방법원 相濟 사무과장이 東隱公派 파조 재실낙성기념으로, 郡北花樹會 선적순례 경비를 절약하여, 光來 종원이 昌原 화수회 새회장에 피선되었다고 각각 10만원씩을 보내 주셨고 이밖에 많은 일가들이 1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의껏 송금해 주셨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세번째 제작에 충당하고 잔액이 없어 11월에 발행될 24호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전국 일가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호소도 해봤지만 한계에 다달아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98년도 11월호처럼 결간(缺刊)이 불가피 한 실정에 놓였다. 일부 일가들은 宗會報 발행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玉峰公 향례 엄수

지난 5월 4일(음력 4월 1일) 진주 시내에 있는 옥봉정사(玉峰精舍) 경내 경덕사(景德祠)에서 어계 선생의 장손인 옥봉공(玉峰公) 휘 순(舜)을 기리는 향례가 함안을 비롯한 파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후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옥봉공은 1464년 함안에서 출생하시어 2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으로 계시다가 연산군(燕山君) 폭정시대 사간원이 없어지자 진주로 내려오셔 남강변 절벽 밑에 옥봉정을 짓고 은둔하셨다. 후손들은 선조를 기려 매년 향례를 올리고 있다. 이날 헌관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在宇(종손) ▲아헌관=景奎(파주) ▲종헌관=鏞燮(여수) ▲집례=顯喆(진주) ▲축관=彝欽(대구)

어계비원 소식

▲지난 5월 19일 判決公派후 참봉공 휘 得道 후손 1백여명이 鏞吉 회장 인솔로 강원도 영월 정절공 유적지 어계비원을 참배했다.

▲지난 5월 6일 參知公派 후 병제공 재경 후손 13명이 趙尙烈 회장 인솔로 어계비원을 참배했다.

▲지난 5월 28일 安東시청 함안조씨 종문회 회원 30여명이 조윤노 회장 인솔로 어계비원을 참배하고 주변을 말끔히 청소를 했다.

宗 告

『漁溪論文集』 필요한 宗員에게 보내드립니다

▼종사운영회는 釜山대학교 사학과 池斗煥 교수 논문 「漁溪 趙旅의 生涯와 影響」과 釜山교육대학교 李愼成 교수의 논문에 다가 수필가 김소봉 씨가 쓴 「아아, 님과 함께 죽지 못했네」(생육신 조여 선생)란 기행문을 묶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집을 갖고자 하는 후손은 우송료 5천원을 동봉하여 주문하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계좌 변경

체신청이 전국 전산망을 온라인화 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咸安趙氏 협찬금 계좌도 변경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협찬 바랍니다. 새 계좌 600015-31-000341

宗事運營會의 發展을 祈願합니다

釜山花樹會
會長 趙顯大
代表理事 / 株式會社 嘉誠
☎(051) 645-2906~8 (自宅) 746-3110

大邱花樹會
會長 趙顯麒
敎授 / 慶北大學校工科大學 金屬工學科
☎(研究室) (053) 950-5561 (自宅) 755-3232

軍면제 혜택 뿌리치고 陸軍에 入隊
자랑스런 咸趙 후예
차세대 科學者, 漁溪후손 趙相俊종원

「美國에서 촉망받는 차세대 과학자 趙相俊씨 병역면제부 팽개치고 육군입대」라고 지난 5월17일 조선일보와 5월18일 국방일보에 대서특필된 주인공이 바로 어계(漁溪)후손으로 밝혀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5월26일 만기제대한 相俊(來·30·감찰공파)종원이 바로 주인공이다. 또한 본회 고문이며 명지대학교 부총장인 伯濟(前·한국통신 사장)종원의 장남이기도 하다.

相俊종원은 지난 97년말 만27세에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신경과학(神經科學) 박사학위를 마치고 98년 5월 군에 입대하여 이날 제대한것이다.

相俊종원은 지난 70년 미국에 유학중인 伯濟종원과 임계순(任桂淳) 한양대학교교수 사이에 태어나 1년뒤 부모를 따라 귀국하여 국내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相俊종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속지주의(屬地主義)원칙에 따라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원하기만 하면 한국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相俊종원은 아버지와 상의하여 『대한민국 남아로서 스스로에 떳떳하고 싶었다』면서 주위에서 『과학자에게 2년간의 공백은 치명적이다』고 말류했지만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3사단 백골부대에 배치되었다.

사병으로 근무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늘 들던 13충의 한분인 감찰공(監察公 휘 敏道)할아버지의 우국충정을 본 받아 함안조씨 후손답게 2년간의 국방의무를 다 한 것이다.

相俊종원은 제대한뒤 중국 여러 도시를 둘러본뒤 8월초 분자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예일大學「바하누! 제나교수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요즘 미국 출산 출국, 조기유학 등 여러수단을 이용하여 병역기피를 도모하는 세태에, 면제된 수 있는 군복무를 솔선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빛나는 것이다.

1백년 歷史가진 蔚山花樹會
參判·固城·參議公派34명이 창립
花樹亭건립『趙氏門中』으로 등기
每年 2월18일 정기총회 결속다져

울산화수회(회장·鏞旻) 역사가 1세기에 가까운 먼 옛날에 창립된 사실이 최근 고문서(古文書)에서 발견되어 옛날에도 일가들이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울산화수회가 정리한 연혁에 의하면 1907년(丁未年)에 參判公派, 固城公派·參議公派등 3개파 34명이 처음 창립하고 뒤늦게 28명이 동참하여 화수회를 운영했던 것이다.

화수회는 해마다 2월 18일(음력) 정기총회를 가졌고 이듬해 화수정을 건립하기로 결의한 성립청조전기(成立請助傳記)란 기록도 있었다. 1933년 2월16일 姓藤옹등 10명이 연명으로 화수정 대지(현재 중구 학성동) 등기를 하였고 1938년 4월1일 화수정을 신축하고 건물은 「조씨문중」으로 등기 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직이 와해되어 업무가 정지되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엿보였고 관리가 소홀 했을때 화수정 대지 일부가 「약사암」이란 절에 침식 되기도 했다. 그뒤 대지 사용료도 받았고 재산세도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한편 울산화수회는 사찰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곤란을 받게되자 이 터를 지난 1월 절에 1억원을 받고 매각하여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다. 지난 6월24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鏞旻회장은 「선대 어른들이 아득히 먼 옛날 화수정을 건립했던 것을 우리 세대에 와서 매각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수도 있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없어 부득히 처분 한것으로 이해 하기 바라고 이 기금을 토대로 5년내 반듯한 회관을 꼭 마련 할 것」이라 다짐했다.

石南齋낙성·유허비除幕式
후손46세대가 헌성금 2억여원 모아

▲낙성된 石南齋

지난 7월17일 거창군 가북면 내촌리에서 충의공 대소헌(大笑軒)선생의 10세손 수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壽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石南公(휘 學奎)의 재사 석남재(石南齋) 낙성과 유허비 제막식이 李康斗국회의원과 鄭柱煥거창군수등 수백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소문중의 문장 顯斗(大邱)종원의 5대조인 石南公이 서기 1816년 이곳에 정착하여 2백여년 동안 세거(世居)하면서 자손들이 5세손에 이르도록 창성하였다 한다.

이날 사회자인 경북대학교 顯麒교수에 의하면 후손 46세대가 헌성금 2억여원을 모아 문화재지정목수 金柾大씨에 의해 1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4칸의 재사와 유허비를 제막하게 된 것이라 했다.

유허비의 글은 釜山대학교 李東英교수가 짓고 방손 大邱 良濟종원이 비문을 써 석남재 앞뜰에 세웠다.

모두 6억8천여 만원
해남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 해남장학문화재단(이사장 趙盛濟)이 지난 5월24일 함안문화원에서 2천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이사장의 부인 노순입여사를 비롯한 趙一濟이사장 대행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군내 54명의 대학생과 11명의 고교생들에게 모두 6천1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95년 장학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6억8천만원에 달한다.

西山書院 定款 수정着手

〈속보〉종사운영회가 사단법인 서산서원(西山書院)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관(定款)을 현실적으로 고치려고 그 일을 부산 趙在淵변호사에게 의뢰했다.

생육신의 위패를 모시고 국천제(菊薦祭·음력 9월9일)를 봉향하기 위해 1980년 만들어진 정관에는 원장(院長) 1명, 부원장 3명, 이사장(理事長) 1명, 이사는 5명내지 15명으로 제한해 두었다.

종사운영회는 법인을 활성화시켜 생육신의 충절(忠節)을 숭앙하는 뜻 있는 분들을 대거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사(理事)수를 30~50명으로 늘리고 원장은 향례의 초헌관으로 정하는등 정관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가 되면 곧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

종사운영회는 이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西山書院 參拜

▲4월5일 함안군 가야읍 호의공 후손 顯來종원등 7명이.

▲4월17일 전남 여수시 거주 대소헌후손 新德문중에서 趙在瀕종원 인솔로 25명.

▲4월19일 함안조씨 南서부지역 후손들이 趙慶允成종원 인솔로 20명.

▲4월30일 참의공파 密陽문중에서 趙文濟종원 인솔로 15명.

▲5월15일 鎭海화수회 회원 30여명이 趙快濟고문 인솔로.

▲5월6일 함안군 군북면 戊寅生일동 40명이 姜大汶씨 안내로.

▲5월13일 金海市 翰林面 화수회원 40명이 회장 인솔로.

▲5월14일 경북 청송 南浦公派 회원 40명이 光來종원 인솔로.

▲5월16일 密陽市 府北面 유도회 회원 47명이 河德鎭씨 인솔로.

▲5월21일 大邱 執義公派후 方壺公 후손 35명이 尙濟종원 인솔로.

▲5월21일 釜山 長林洞 화수회 회원 10명이 性九종원 인솔로.

▲5월28일 진주 慶尙大學校 한문학 대학원생 22명이 許勝洙氏 인솔로.

▲7월16일 함안군 법수면 대소헌공파 후 도봉공 후손 15명이 鏞泰종원 인솔로.

宗事運營會에 에어컨등 기증
변호사 辰來종원

지난 7월30일 창원시내서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 辰來종원(大笑軒(公派)이 에어컨, 팩스, 복사기 각각 1대씩을 종사운영회에 기증했다.

靑松선적지 순례

▲지난 5월16일 郡北面花樹會(회장 快濟)에서 경북 청송 선적지를 다녀왔다.

이날 4백30여명이 버스 10대에 나누어 타고 망운정(望雲亭)을 비롯하여 東溪公, 松浦公재실과 新堂公의 추모정, 그리고 남포정과 강변에 있는 방호정(方壺亭)과 지악정(芝嶽亭)을 순방했다.

부음

▲종사운영회 鏞振(前 金海화수회회장)이사가 지난 7월16일 金海市 大東面 主東里 城內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80세.

▲영류재에서 기념활영

仁溪公 묘소 參拜
釜山靑年會 가족70여명

부산청년회(회장 奉濟)회원및 가족 70여명이 전라남도 곡성 절도공후, 인계공(仁溪公)묘소를 참배했다. 부산청년회는 방학기간동안 2세들과 함께 순례하는 계획에 따라 지난 7월23일 올해는 谷城을 택했다. 이날 인계공종회 鏞敏회장과 國濟영류회 회장등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일행은 鏞敏회장의 안내로 곡성의 유적을 탐방했다.

청년회는 곡성방문기념으로 기념식수도 가졌다 한다.

D 대원정판인쇄사
팜플렛·포스터·종이박스·사보·
카탈로그·브로슈어·광고기획
社長 趙 復 來 (參議公派)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184-7번지 ☎(051)504-4190(代)·505-3329 기획실 : 504-7934 FAX.(051)504-4160
H.P : 011-552-6257

내헌공(耐軒公) 연(淵) 行錄

선조의 얼 ㉒

趙一來 〈新堂公派·本會理事〉

金安老의 政權專橫에 落鄕
詩書에 능통하여 遺墨 稀貴
妻家있는 곳 青松으로 入鄕

내헌공(耐軒公)은 貞節公 漁溪 先生의 손자이시며 珍山公 휘 銅虎의 아들 칠형제 가운데 제7자로 成宗 己酉(一四八九年)에 출생하시니 휘는 淵이요 자는 精卿이요 호는 耐軒이시다.

〈公은 中宗 庚午(一五一○年)에 弱冠 二十二歲로 趙靜庵(光祖) 선생과 동방進士하시고 金泉道察訪을 거쳐 義禁府經歷에 있을 때에 당시 金安老(丁酉三凶之一)가 정권을 전횡함을 보시고 취히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벼슬을 버리고 落鄕하시는 길에 어느 원벽(院壁)에 詩를 지어 남기시기를 暗霧漫空作勢飄 日高三丈未全消, 不嫌遠客征衣濕, 只恐成陰蔽大昭「짙은 안개 허공에 가득 퍼져 기세를 떨쳐서, 해가 중천에 높이 뜨고 사라지지 않는구나. 먼길 가는 길손 옷 젖는 건 꺼리지 아니하나, 다만 그늘되어 大明을 가리울까 두렵구나」라고 하셨다. 그후 보는 이들이 다 애송하였다 한다.

〈公은 일찍 詩書에 능하시어 筆法은 당시 초성(草聖)으로 이름 높은 孤山 黃耆老와 同遊하며 일찍 말하길 「大字는 나에게 양보한지 모르나 中小字는 내가 靜卿만 못하다」하였고 筆名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碑文, 墓誌, 屛風 등에 많이 있었다고 하나 兵火로 인하여 소실되고 현존한 遺墨은 수점에 불과하다.

〈公이 일찍 지나는 길에 정중 沈連源宅을 방문하시니 마침 下鄕 郡守가 銀魚 두마리를 실려 보낸 것을 沈정승이 임금님께 진상하려 하거늘 〈公이 저지하여 말씀하시기를 「고기라는 것은 학시 신선함을 유지하지 못하니 반드시 무궁한 계단을 부를 것이라」하시니 沈정승이 깨달아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公은 매사를 사려하시는 深淺이 이와 같았다.

〈公은 벼슬을 그만두신 후로 名勝松景을 두루 探賞하시며 感賞賦詩하시고 悠悠自適하실제 青松山水의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침 처가 昌寧曺氏宅인 青松 安德에 계시다가 古松生에 築室하여 終老之計를 삼으시고 둘째 손자 贈判書 휘 址를 安德에 거주하는 安東權氏 習讀條의 따님에게 장가들이어 살게 하시니(明宗 壬戌 一五六二年) 이로부터 耐軒公 一派가 青松에 세거(世居)하게 된 端初가 이루어졌다.

〈公은 晩年에 고향생각이 간절하시어 明宗 壬戌(一五六二年)에 咸安 郡西山足里 中後洞으로 還鄕하시니 그 마을 또한 그윽하고 조용하여 林藪泉石의 景致가 있었다. 匡山樵老 安宅과 縣監 茅谷 竹塢 吳彦毅와 金蘭之契(또는 三老會, 山水契)를 맺어 삼로가, 서로 상종하여 詩를 읊으시고 자연에 遊娛하시어 서로 주고받은 詩篇이 卷軸을 이루었는데 모두 公의 手筆이며 이를 이름하여 「耐軒還鄕錄」이라 하였다.

鄕人後進中 詩文에 뛰어난 篁谷 李偁과 大笑軒 趙宗道 李喜弼이 혹은 序文을 쓰고 혹은 跋文을 쓰며 혹은 次韻하여 그 아름다운 자취를 더욱 빛내어 일가 자손의 보배가 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소실되어 전하지 아니한다.

〈公은 明宗 甲子(一五六四年) 正月 二十六日에 卒하시니 享年이 七十六이요 묘는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속칭 새올) 天生山下艮坐이고 贈通政大夫戶曹參議이시다.

〈公은 後嗣가 없으시어 六兄 虞侯公 휘 건(騫)의 넷째 아들 휘 庭彦을 後嗣를 삼으시니 贈嘉善大夫刑曹參判이시다. 參判公의 아들 六兄弟中 둘째인 휘 址 號 望雲亭 贈刑曹判書(公의 아들 휘 守道 號 新堂 贈司僕寺正, 휘 享道 號 東溪 官嘉善五衛都摠府副摠官副元帥는 出繼伯父後하고, 휘 純道 號 南浦 資憲大夫知中樞府事, 휘 身道 號 方壺 官護軍은 出繼再從叔後하고, 휘 東道 號 芝娛 官濟用監副正, 五兄弟의 後孫들이 世居 青松하니 其麗數千이 八域에 散在하며 비록 鴻儒碩德의 鳴世者는 없으나 零替하지는 아니하다.

▲경북 구미시 신동에 있는 영모재(永慕齋)

黃石山城 黃巖祠 상량식
9월 15일 추모행사 이곳서 거행예정

서기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순국한 大笑軒 선생과 5백여명의 무명용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당 황암사(黃巖祠) 건립공사가 咸陽郡과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위원회에 의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2차 사당 건립공사는 晋州 정우건설(장병천)과 계약을 맺고 지난 5월 24일 착공, 7월 28일 사당(祠堂) 상량식을 올렸다. 7월 30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4.6m의 의총(義塚) 조성사업과 12평의 사당(三間) 1동, 삼내문 1동, 홍살문 1조 등인데 9월 15일(음력 8월 18일) 거행될 추모행사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치뤄질 것이라 한다.

한편 鄭曄圭 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3억원의 특별교부세는 이곳 李康斗 국회의원이 확보해 줌으로써 부대시설인 기념탑, 담장, 주차장 조경사업공사도 해결되었다.

沙川齋 준공식
後孫들의 3억여원 성금으로

▲낙성된 사천재(沙川齋)

남계공(南溪公) 후 동은공파(東隱公派) 부산 사상종중에서는 동은공 파조(派祖)를 위시한 첨정공(僉正公) 휘 국도(國道)와 교위공(校尉公) 휘 진도(璡道), 그리고 역대 선조의 세사(歲事)를 봉행할 재실 사천재(沙川齋)를 준공하여 지난 5월 19일 낙성식을 가졌다.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백양산(白楊山) 기슭에 종중기금과 후손들의 성금등 3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5월 부지 1백16평에 1층은 종손(顧日)이 살 수 있도록 꾸미고 2층은 한옥식 기와를 얹은 52평의 현대식과 절충한 건물을 착공 1년만에 완공하여 이날 낙성식을 가졌다.

咸安淸風會 선적지 참배

▲함안 청풍회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경기도 파주(坡州)의 옥천공(玉川公) 휘 갑(埏)의 묘소를 참배했다.

함안 청풍회는 선적지 순례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在京 종원의 안내로 옥천공 묘소를 참배했다. 옥천공은 서기 1547년 白休庵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을 수학하다가 스승의 사위가 되어 그곳에 정착, 많은 후손들이 경기도 부근에 세거하게 되었다.

承義公派 종사운영회 창립

절도공(節度公) 휘 수천(壽千)의 둘째아들 휘 응기(應箕)의 손자 승의공(承義公) 후손들이 집안 결속을 위해 지난 5월 5일 사천시 곤양면 올치리 승의공 묘역에서 承義公派 종사운영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부산·진주 등지에서 후손 1백여명이 참석하여 초대회장에 連濟 종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連濟(곤양)
▲부회장=益來(서울), 七濟(부산), 良濟(하동)

曉星그룹 趙洪濟 회장 회고록
『나의 回顧』 1만여부 重刊

高宗 光武 10년(1906년)에 출생하여 광복을 맞아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재계(財界)를 이끌어오다가 향년 79세로 1984년 1월 16일에 세상을 떠난 만우(晩愚) 趙洪濟 회장의 회고록 「나의 回顧」가 지난 4월 10일 중간되었다.

이 회고록은 1978년 여름에 서울 경제신문에 1백회로 연재되었는데 우리나라 재계의 궁금했던 일들을 시원시원히 풀어 주어 신문이 나오는 시간이 되면 거의 모든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고 신문 부수도 3천여부가 늘어날만큼 인기가 높았다 한다.

1983년에 단행본으로 몇백부 발간되었다가 이번 錫來 회장의 결단으로 중간을 하게 되었는데 원문(原文)을 그대로 옮겨싣고 권말에 연보(年譜)를 더 넣었다 한다.

제1부로 백세청풍(百世淸風)의 정신 그리고 만학(晩學), 제2부는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다지며, 제3부는 효성, 경세가(經世家)로서의 외길, 제4부는 동방명성(東方明星)을 지향하여로 엮여 있다.

1만1천여부를 비매품으로 출간하였다 한다.

『咸安趙氏 先蹟圖鑑』
釜山青年會서 곧 製作

함안조씨 선적도감(咸安趙氏 先蹟圖鑑) 제작을 추진중이던 부산청년회(회장 奉濟)가 자료수집을 끝내고 곧 제작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1960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西山書堂 명의로 발간되었던 선적도감(1백53페이지)이 당시 흑백사진인데다가 활자도 인쇄체가 아닌 프린트체이고, 선적에 대한 설명도 옛글인데다 가이 책마져 구한 수도 없어 5년전 청년회장이던 동명대학 義濟 교수가 컬러판 책자를 만들기로 하고 카메라 등 최신 장비를 갖추어 함안, 청송, 파주, 안동 등 유적지(遺蹟地)를 찾아 자료를 수집했다.

청년회는 이 책이 완성되면 일가들에게 염가로 공급할 것이라 한다.

株式會社 東進電子 / 株式會社 宇南

代表理事 趙 栢 濟 (大笑軒公派)

동진전자 창원 ☎(055) 252-8300, 1701～8
우 남 양산 ☎(055) 386-1400～5
(自宅) 051) 552-6327

家系圖·派系圖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畵板 만든 靑松 慶來 종원

국립박물관장도 극구 칭찬
日本 教授도 놀라 한점 희사
특수한 木板진열장도 제작

(주)리풍시스템건설 기술상무인 靑松 출신 慶來(51·方壺公派) 종원이 방호공파 묵은공 소문중을 시조(始祖)로부터 31세현(顯)자와 외손(外孫)에 이르는 가계도(家系圖)와 선조 묘소 지적도, 묘소 찾아가는 길, 도표를 만들고 선대의 제사날, 큰집 작은집 등 친척들의 전화번호 등 여러모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을 높이 66㎝, 폭 73㎝의 화판(畵板)으로 만들어 종사 운영회에 선보였다. 또 하단에는 어게선조 이후 17대까지 과계도(派系圖)와 13종은 노랑색으로 양자간 선조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했고 청송입향 6개과의 도표로 기록되어 있다. 독특한 창의력과 기법으로 제작된 이 화판은 첫눈에 봐도 알 수 있게 제작되었다. 慶來 종원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이 가계도를 평가받기 위해 서울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냈는데 李鍾哲 관장이 「한 점안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은 발명특허감」이라 탐복을 했다 한다.

또 최근 일본 東京大學 민속박물관장 「이또」 교수가 한국의 민속박물관에서 李관장으로부터 이 작품의 소개를 받고 일본에 가져가서 연구자료로 삼고 싶다고 주문하여 같은 것을 만들어 일본에도 한점 갖고 갔다고 한다. 「이또」 교수는 내용 가운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순국하신 13층의 설명을 듣고 「선조들의 부질없는 침략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다.

慶來 종원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공대(工大)를 나와도 힘든 건축미공 기술사와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도 공고(工高)출신으로 각 대학의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 靑松의 방호정이 76년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다음 방호정 「과산세록」, 「현애세고」 등 목판(木板) 3백74장이 있어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하여 목판 진열장을 만들어 도난방지시설도 직접 만들어 후환을 없애는 등 선조의 행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無農藥 농작물재배법 개발한 趙武濟 교수

식물생체방어과정 발견
한국과학상의 영예안아
실용화되면 농법 대혁명

농약을 치지 않고도 병충해에 견디는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주 慶尙大學校 趙武濟(56·대소헌공파) 교수에 의해 발견되어 노벨상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武濟 종원은 이로 인해 지난 4월말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과학상을 받았다.

그의 연구는 식물에서 칼모듈린이라는 칼슘 결합단백질의 이성체에 의해 매개되는 새로운 식물 생체방어 신호전달 과정을 발견한 것이다.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武濟 종원은 연구결과를 미국과 유럽에 특허 출원중에 있으며 실용화 할 경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병해충에 견딜 수 있는 「무공해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武濟 종원의 고향은 泗川市인데 5대조가 함안에서 이곳으로 이사하여 정착했다. 그는 경상대학교에서 학사를,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76년도 美國 미조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경상대학교에서 「식물생체방어 신호전달 기전 및 이를 이용한 광범위 병저항성형질전환 식물체 개발 연구」에 몰두하면서 82년도에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2년간 객원교수로, 97년도부터 2년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을 역임했다. 지난 해는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부산거주 成濟 본회 이사 『房中居士의 閑談』 발간

부산에 거주하는 成濟 본회이사가 지난 6월 「房中居士의 閑談」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필자의 서문에 의하면 43년동안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지난 세월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접한 일들을 손재로 책을 엮었다 한다. 이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애정, 향수、귀소본능이 강해지는 심성을 표현한 내용들이고 그밖에 역사상식,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와 인물평가에 대하여 부산일보에 발표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73년도 부산화수회 회기를 도안하는 등 예능에도 많은 취미를 갖고 있다.

宗·員·動·靜

▲趙顯峻종원=5월5일 신용보증기금 理事로 승진.

▲趙雄來종원=5월10일 株式會社 효성 ISO 팀장으로 승진.

▲趙溢來종원=5월23일 한국은행 국제국 선임 조사역으로.

▲趙成奎종원=5월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으로.

▲趙鏞光종원=6월3일 공정거래 大邱사무소 소장으로.

▲趙鏞桂종원=6월20일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도로정책과장으로.

▲趙又鳳(在)종원=6월30일 農協中央會 常務로 승진.

▲趙顯俊종원=6월30일 나이스자산평가(주) 대표이사로.

▲趙鏞一종원=7월3일 현대해상보험(주) 법인영업지원부장으로.

▲趙三郞종원=7월5일 서울 瑞草경찰서 서장으로.

▲趙鏞燮종원=7월5일 경찰청 치안연구소、

▲趙俊雄(濟)종원=7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仁川地檢 檢事長으로.

▲趙棟來종원=7월10일 대한주택공사 경영관리 실장으로.

▲趙鏞昇종원=7월10일 지디탈이코노미 편집국장으로.

▲趙顯國종원=7월11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증권법인부장으로.

▲趙顯明종원=7월15일 경남도 여성아동과 과장으로.

▲趙鏞祚종원=7월15일 경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으로.

▲趙完濟종원=7월15일 한국철강(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鏞轟종원=7월22일 서울지법부장판사로.

▲趙顯日종원=7월22일 법원도서관 심의관 판사로.

▲趙顯淳종원=7월22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 검사로.

▲趙基興(褧悔公派)종원=평택대학교 총장은 지난 5월26일 본교에서 첨단시설을 갖춘 이공관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7월27일 LG에너지 趙芳來(집의공파) 사장이 LG파워 대표이사로.

宗會報 協贊金 感謝합니다

▲趙景珍(來·大邱·대한 M&A주식회사 대표이사)=50만원

▲趙伯濟(서울 明知大學校 副總長)=30만원

▲趙孝濟(釜山·前丸永鐵鋼(株) 代表理事)=20만원

▲趙鏞翰(晋州·사단법인 농촌지도자 경남연합회 사무국장)=10만원

▲趙光來(昌原花樹會 新任 會長)=10만원

▲趙龍吉(釜山·合同작크工業(株) 代表理事)=10만원

▲趙顯甲(SK텔레콤 昌原 代理店 대표)=10만원

▲趙相濟(昌原地法 晋州支院 事務課長)=10만원

▲郡北花樹會(회장 趙快濟)=10만원

▲趙貞來(東隱公派 沙川齋 낙성기념)=10만원

▲在邱青松 執義公派(方壺公派) 재종계 일동=10만원

함안

▲趙鏞孝(咸安面 北村里)=2만원

▲조이제(法守面 江洲里)=2만원

▲조경제(咸安郡 法守面)=3만원

▲趙中來(군북면 중암리)=3만원

▲趙興濟(郡北面 下林里)=1만원

▲趙大濟(郡北面 柳峴里·本會 자문위원)=2만원

▲趙東濟(郡北面 長池里)=2만원

▲趙正奎(대산면 송라리)=3만원

부산

▲趙三道(鏞·釜山花樹會 顧問)=3만원

▲趙義濟(東明大學 教授)=3만원

▲조용부(西區 西大新洞 3街)=5만원

▲조우문(西區 美容洞2街)=2만원

▲趙判兆(中區花樹會支會 會長)=2만원

▲趙明濟(釜山交通公團 계획설계부장)=3만원

▲趙顯雨(沙上區 周禮洞)=1만원

▲趙永來(釜山鎭區廳 戶籍係長)=2만원

▲조석래(農協 엄궁지점에서 송금)=3만원

▲조재동(전 동남은행 부산진지점에서 송금)=2만원

▲趙斗漢(佐洞·전 書藝院 院長)=3만원

▲趙南奎(南山洞·書藝家)=2만원

▲趙成濟(影島區 蓬萊洞 4街)=2만원

▲趙玉來(影島區 新仙洞 2街)=1만원

▲趙鏞萬(草梁타이어 代理店 代表)=5만원

▲조춘래(동래구 사직동 出嫁한 딸)=2만원

▲趙才弼(在·影島조기 공업사 차장)=5만원

서울

▲趙洸來(전 서울花樹會 事務局長)=5만원

▲趙顯明(서울 감사원 감사관)=3만원

▲趙貞濟(논현동 特許法律事務所)=3만원

▲조용태(강남구 포이동)=2만원

▲趙庚來(전 第一銀行 部長 퇴직)=5만원

▲趙顯默(大宇建設(株) 課長)=2만원

▲趙銳濟(송파구 오금동 현대APT)=3만원

▲趙辰來(전 巨濟市 副市長)=5만원

경남

▲趙 忠(顯·晋州市 中安洞·本會 理事)=5만원

▲조봉주(산청군 단성면)=2만원

▲조용욱(泗川市 三千浦洞)=2만원

▲趙性五(김해시 동상동)=2만원

▲趙鏞寅(김해시 외동)=1만원

▲趙弘來(김해시 한림면 안하리)=1만원

▲趙圭來(김해시 한림면 안하리)=1만원

▲趙性洛(김해시 한림면 장방리)=1만원

▲趙文鉉(김해시 진영읍 진영리)=1만원

▲趙德奎(김해시 장유면 진영리)=1만원

▲趙鏞文(김해시 장유면 무계리)=1만원

▲趙鏞振(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성안)=1만원

▲趙性柱(김해시 주촌면 선지리)=1만원

▲조익규(진주시 신안동)=2만원

▲趙珵濟(晋州市 虎灘洞·本會理事)=5만원

▲趙鏞河(梁山市 勿禁邑 가촌리)=2만원

▲趙乙濟(昌原·한국도로공사 영남2사업소 품질관리부장)=5만원

▲趙明根(來·창원소방서 근무)=3만원

▲趙性紋(馬山市 柳原주유소 社長)=3만원

▲趙鏞岩(馬山市 中央洞)=3만원

▲趙東濟(馬山市 校原洞)=3만원

▲조상제(마산 해운동지점에서 송금)=2만원

▲조승주(통영군 산양면)=1만원

▲조의호(거창군 대동리)=3만원

▲趙孝濟(馬山市 鳳岩우체국에서 송금)=5만원

▲조현욱(居昌郡 대동리)=2만원

▲趙貞健(鎭海花樹會 總務)=2만원

울산

▲趙仁奎(삼양유업합자회사 대표)=3만원

▲趙鏞哲(울주군 웅촌면)=3만원

▲趙鏞德(중구 다운동)=2만원

▲조인제(중구 반구1동)=2만원

대구·경북

▲趙良濟(大邱·한일조각사 대표)=5만원

▲趙省濟(大邱·(株)德源理事)=3만원

▲趙幸典(顯·前 壽城區 區議員)=5만원

▲趙在善(大邱市 東區 新岩4洞)=5만원

▲趙義濟(대구시 태영품산 사장)=2만원

▲조정순(대구시 동구 신암동)=2만원

▲조양래(浦項市 장기면 대곡리)=2만원

▲趙康司(鏞·김천시 대덕면 화전리)=3만원

▲趙順濟(경주시 황성동)=2만원

▲趙鏞佑(靑松郡 安德面 明堂里)=2만원

▲趙顯基(星州郡 선남면)=2만원

▲조중제(고령군 다산면)=1만원

▲趙勝濟(大邱地方國稅廳 直稅局長)=5만원

▲趙永伯(奉化郡 春陽面)=2만원

경기도

▲趙台奎(삼환애드(주) 대표이사)=5만원

인천

▲趙鏞俊(東區 區議會 議員)=3만원

대전

▲趙漢杓(大田市 西區 변동)=2만원

호남

▲조원규(전북 진안군 정천면)=2만원

▲조학래(전남 광양시 진원면)=3만원

〈7월 20일 마감〉

※ 釜山日報 趙鏞生 종원은 釜山日報 社外理事가 아닌 釜山日報 常任監事로 바로잡음.

우체국 온라인화로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우 체 국 : 600015-31-000341
국민은행 : 106-21-0494-113　　조 영 제
농　　협 : 919-02-049363

※ 죄송하오나 송금하신 후 051-626-1572/011-875-1572로 연락바랍니다. 주소나 직장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